



한국 여자 축구 선수들이 9일 오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FC 스텝 아코보에서 열린 준결승 경기에서 프랑스를 승부차기 4 : 3으로 물리친 뒤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사상 첫 결승 진출

U대회 佛에 승부차기 승 내일 일본과 우승 다툼
초당대 수영 정두희 100m 접영 한국신 준결 진출

한국 여자축구가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 유니버시아드 결승에 올라 사상 첫 정상 정복을 노린다.

한국은 모레 열리는 결승에서 숙적 일본을 맞아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전을 벌인다. 여자 축구팀은 9일 새벽(한국시간) FC스텝 아코보 경기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맞아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힘겹게 이겼다.

경기가 열리기 한 시간 전 내린 폭우로 수중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프랑스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경기 내내 고전했다.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맞기도 했지만 쉽게도 프랑스 골키퍼 정면으로 공이 가면서 결국 전후반 90분을 득점없이 비겼다.

승부차기에서는 한국팀의 수문장 이선민(대교)이 빛났다. 이선민은 선축에 나선 프랑스 첫 번째 키커의 공을 막아낸 데 이어 마

지막 5번째 키커의 공마저 쳐내면서 결승 진출의 일등 공신이 됐다.

남자 축구팀은 5-8위전에서 프랑스를 3-2로 꺾고 5-6위 결정전에 올라갔다.

한편 유도는 이를 연속 금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81kg 이하 체급에 출전한 김민규(수원시청)는 아제르바이잔의 구르바노프 라민에게 14-1로 완패했다. 71kg 이하와 90kg 이하 체급에 각각 출전한 황예슬(한국체대)과 이규원(용인대)도 패자부활전으로 밀린 끝에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수영 국가대표인 정두희(초당대)는 한국 신기록을 3개째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계속했다.

정두희는 베오그라드 SC타슈미딘 수영장에서 열린 접영 100m 예선전에서 52초88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정두희는 예선 5위로 10일 새벽 16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진출했다.

여자 수영 평형 200m에 진출한 한국신기록 보유자 정슬기(건국대)는 준결승에서 2분29초76의 기록으로 7위를 기록, 10일 열리는 결승에 진출했다. 육상에서는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대구광역시청)과 정상진(안산시청)이 예선에서 각각 74m64, 74m34를 던져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다.

테니스 남녀 단식의 김성관(명지대)과 이예라(한솔제지)는 8강에 올라 메달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탁구에서도 여자 복식 두팀이 8강에 진출했다.

양궁 여자부 개인전 랭킹 라운드에서는 김예슬(경희대)과 김유미(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가 각각 663점과 660점을 쏘아 1,2위로 본선에 올랐다. 남자부 랭킹 라운드에서는 김성훈(한국체대)이 617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남자 농구팀은 순위결정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05-77로 대파하고 3연패 끝에 첫 승을 거뒀다.

이날 현재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2위를 지켰다. 전날 1위로 올랐던 중국은 금,은,동메달 각각 13,16,10개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맨유 오베르탕 영입...박지성과 경쟁 불가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살의 젊은 공격수 가브리엘 오베르탕과 4년 계약을 맺었다.

맨유는 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도유망한 프랑스 출신의 공격수 오

베르탕과 2013년 6월까지 계약했다. 2009-2010 시즌을 앞두고 세 번째 영입한 선수"라고 발표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오베르탕은 최근 몇 년 동안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인 선수"라며 "어떤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공격수다.

맨유는 유망주를 영입해 발전시키는 팀이다. 2년 후면 달린 오베르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한편 맨유는 지난해 조란 토시치를 최근 안토니오 발렌시아에 이어 오베르탕까지 영입하면서 측면 공격수 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올해 28살인 박지성으로선 20대 초반의 어린 경쟁자들과 주전 자리를 놓고 생존경쟁을 치러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연합뉴스

이번엔 원정 무승 징크스 깬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 내일 포항과 맞대결

최성국·김명중 쌍포에 고슬기 가세 든든



1위 수성의 중대 고비를 맞은 광주 상무가 포항 원정길에 오른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는 1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2009 K-리그 1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지난주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2-3의 역전패를 당하며 홈 무패 행진이 깨진 상무(9승2무3패 승점29)는 2위 전북(8승3무2패 승점27)과 3위 서울(8승3무3패 승점27)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1위 수성을 위해 반드시 승이 필요한 상무지만 상대 포항과의 전적은 좋지 않다. 상무는 2003년 광주 연고로 K-리그에 참가한 이후 포항과의 원정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상대전적이 1무8패다. 포항전 17경기 연속 실점의 기록도 가지고 있다.

실상가상 포항은 최근 정구리그 3경기에서 8골을 터트리는 등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포항전 승리를 위해 공격의 두 핵 최

성국·김명중이 출격한다.

최성국은 3골 3도움으로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전에서 무릎부상을 당했던 김명중은 큰 이상이 없어 포항과의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뒤늦게 득점 행진에 뛰어든 고슬기도 팀 공격에 힘을 보탠다.

지난 12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마수결이 끝을 장식한 고슬기는 14라운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도 경기 시작 2분만에 득점포를 가동시켜 상무의 공격라인에 힘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포항 수비수 김형일과 황재원의 경고누적으로 상대 수비에 누수가 있는 만큼 상무는 거센 공격으로 승점 사냥에 도전한다.

이번 경기에서 골키퍼 김용대는 통산 2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주 대전과의 대결에서 0-1로 패하며 3연패에 빠진 전남 드래곤즈는 제주로 건너가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



연습이라도 열심히

9일 경북 영주시 순흥면 경륜훈련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1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우천으로 경기일정이 연기되자 산에 둘러싸인 벨로드롬을 돌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스트롱 이틀째 종합 2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8·미국)이 투르 드 프랑스(프랑스도로인주사이클)에서 이틀째 개인 종합 2위를 달렸다. 암스트롱은 9일(한국시간) 프랑스 르 캅

다가드에서 페르디낭까지 이어진 대회 5구간 196.5km를 4시간29분42초에 주파해 2위권 155명과 함께 끝냈다.

5구간까지 15시간7분49초를 달린 암스트롱은 1위 파비앙 캄펠라라(스위스)에 0.22초 차로 뒤진 채 2위를 유지했다. 2구간까지 개인 종합 10위에 머물렀던 암스트롱은 3구간을 거치며 3위로 뛰어올랐고 4구간을 마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화순군청 위진아 배드민턴 국가대표

10년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연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단식 부문 국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중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세계 랭킹 8위의 박성환(국군체육부대)과 세계 랭킹 16위의 황해연(삼성전기) 등 남자 12명과 여자 10명이 선발됐다.

단식 국가대표는 5~9일 태릉선수촌 오픈관에서 열린 선발전을 통해 뽑혔다. 남녀 각 20명이 조별 10명씩 풀리그를 펼쳤으며, 상위 입상자를 중심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에 뽑힌 선수들은 9일 일본수퍼시리즈, 10일 베트남그랑프리 등 올해 열리는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한다.

다음은 국가대표 단식선수 명단.

▲남자=장영수(김천시청) 박성환(국군체육부대) 최호진(〃) 황정운(삼성전기) 이철호(수원시청) 노예욱(한국체대) 한기훈(〃) 황중수(인하대) 손완호(〃) 박완호(경희대) 홍지훈(원광대) 김사랑(인하대) ▲여자=배승희(KT&G) 황해연(삼성전기) 강해원(〃) 위진아(화순군청) 이연화(대교농고) 이소연(영동고) 이현진(한국체대) 김문희(〃) 장수영(〃) 성지현(창덕여고) /연합뉴스

한국 조 1위 4강행

유스핸드볼 쇼 예선

한국남자핸드볼청소년대표팀이 2010 유스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 4위에 올랐다.

한국은 9일 태릉선수촌 오픈관에서 열린 B조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식이 10골, 이정화가 6골을 넣은 데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를 29-22로 가볍게 꺾었다.

조별리그에서 3연승을 거둔 한국은 11일 A조 2위 아랍에미리트(2승1패)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사우디아라비아(2승1패)는 A조 1위 일본(3승)과 4강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10일(금)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 : 충암고>(12 : 50·Xports)

▲테이비스컵 테니스 단식 1,2 <한국 : 중국>(12 : 5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한신>(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KIA : 두산>(18 : 30·MBCSPN), <롯데 : 히어로즈>(18 : 10·KBSN SPORTS), <삼성 : SK>(18 : 10·Xports), <LG : 한화>(18 : 20·ETV)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화노드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학곡사거리 ♥에메1544-0600

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
2관	킹콩을 들다 (전체)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4관	킹콩을 들다 (전체)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주온-원혼의 부활 (15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오감도 (18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왕도시청 영화시청 *에메:www.joybc.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관뒷편)

1관	킹콩을 들다 (전체)
2관	아더와미니모이(전체/14세)/여고괴담5(15세)
3관	킹콩을 들다 (전체)/오감도 (18세)
4관	오감도 (18세)
5관	주온-원혼의 부활 (15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박물관이살아있다(전체)/트랜스포머(12세)
10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상무점] 평일 휴게실 200원 할인! 종업원인기!! 1588-7941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

고려시청 고객관람 *www.hamcinema.co.kr/ 1588-8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해미스포텍스 ☎ 267-7777

1관	여고괴담5(15세)/터미네이터(15세)
2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3관	아더와 미니모이 (전체)
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킹콩을 들다 (전체)
7관	오감도 (18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10관	주온-원혼의 부활 (15세)

* 5000원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매일 심야
* 이프유 분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세종시청 영화시청 *www.dnusa.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킹콩을 들다 (전체)
2관	오감도 (18세)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12세)/박물관이살아있다2(전체)
4관	거북이 달린다(15세)/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12세)
5관	주온-원혼의 부활 (15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릎주차 3시간 *
* 이프유 분신사 할인혜택 *
* 세너스북적 사무나(오전5시~오후11시)

세종시청 7점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2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3관	오감도 (18세)
4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5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6관	킹콩을 들다 (전체)

* 무료주차 3시간 (충장로보건소 건너편) *
* 이프유 분신사 할인혜택 *
* 세너스북적 사무나(오전5시~오후11시)